

## 풍림산업주식회사 월곶2차아파트 현장

### 존중하는 안전문화 풍토! 무재해 현장, 고품질 현장으로 태어나

어느덧 천지가 개나리, 진달래, 벚꽃으로 뒤덮여 꽃의 나라를 방불케 하더니, 따갑지 못해 덤기까지 한 햇살아래 모든 산자락에는 연두빛 싱그러운 나뭇잎이 하늘거린다. 숨쉴 틈도 없이 빠르게 변하는 자연에서 시간의 흐름이 감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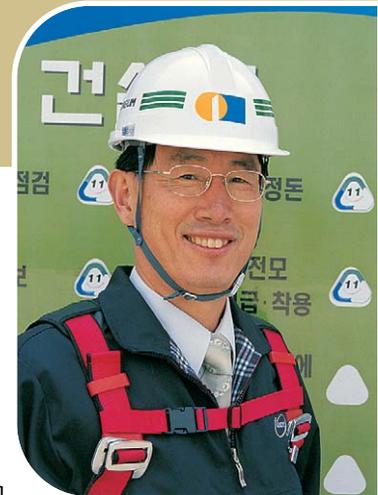
오늘 찾은 풍림산업주식회사 월곶 2차 아파트 현장(김화겸 소장)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자기 모습을 변모하며 시간의 흐름을 보여준다.

12월 입주를 위해 오늘도 혼열의 힘을 쏟고 있는 이곳 현장은 15개동의 골조기준층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옥탑층 시공과 함께 마감공정을 남겨두고 있다. 즉, 고층 시공에 따른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재래형 재해의 발생 위험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다.

“안전은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공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김화겸 소장은 내가 먼저 술선수범하여 현장의 안전을 지켜나갈 때 현장 근로자들도 무재해를 위해 매진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김화겸 소장은 매일 2개동씩 현장 순찰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순찰은 잘못된 것, 불안정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그안에 내포하고 있는 또 다른 의미를 김화겸 소장으로부터 들어본다.

#### 인격을 존중한 대화에서 시작



▲ 김 화 겸 소장

## 건설안전리포트

요즘 근로자는 예전 근로자와 다르다. 강압에 의해 유지되었던 옛날은 강요하지 않으면 안전모 하나 씌우기 힘들었지만, 지금의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강요나 강압은 통하지 않는다. 함께 현장을 이끌어가는 근로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러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김화겸 소장은 주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현장 근로자를 대할 때에는 높이를 낮추라고 주문한다. 현장 근로자가 지금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듣는 자세가 필요한 데 이는 내가 근로자보다 밑에 있다는 자세일 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 근로자들이 관리자들보다 나이가 많은 경우가 흔히 있어, 그러다보니 자칫 실수할 수 있는 말에 감정을 상하기 때문에 언행에 신경쓸 것을 당부한다.

그래서 현장 근로자와 가까워지기 위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매일 현장을 순찰할 때에도 잘못된 것에 대한 지적보다는 안부 인사에서 농담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야기를 하고 들으려 한다.

### 위험공정을 안전공정으로

지난 동절기에 공기 만회를 위하여 골조 공사를 진행하였다. 많은 재해 통계에서 나타났듯이 이 때에 근로자들의 질식재해가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인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현장에 산소농도 측정기를 비치하여 작업시작전·중·후 산소농도를 측정케 하고, 밀폐된 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자를 배치하는 등 세심한 관리를 전개하였다.

특히, 야간 작업자 근로자에 대해서는 감독을 위하여 직원 2명씩 조를 편성하여 야간 순찰 및 감독 활동을 강화하였다.

또한, 아파트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추락, 낙하 등 재

래형 재해 근절에 대해서는 풍림산업주식회사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안전 제자리 찾기 운동”인 안전 Cycle 생활화, 사전안전성 확보, 정리정돈 정착 등을 바탕으로 안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원과 이를 100% 활용할 수 있는 안전문화 풍토 조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앞으로 더욱 강력히 매진할 계획이다.

### 공감대를 형성한 안전활동

#### 전개

현장에서 아무리 좋은 선진 안전기법이 있다 하여도

이를 지키는 현장 근로자들이 이를 해를 못하고, 지켜야겠다는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다면, 안전활동은 안한만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곳 현장에서 추진하는 모든 안전활동은 근로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추진한다고 함영중 안전과장은 말한다.

아침에 하는 체조도 왜 해야 하는지를 먼저 이해시키고, 현장에 게시된 안전표지판 등 계몽





표지판도 근로자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주제로 선정한다.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추진된 안전활동은 자율적이 되고, 효과 또한 매우 크다.

이 밖에 이곳 현장에서의 안전은 정리정돈에서 시작되어서인지 현장 입구부터 느낌이 남다르다. 취재를 위해 현장안에 들어섰을 때 모든 세대 각층에 쓰레기 봉투와 청소도구가 나란히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고 작은 곳까지 세심하게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이동 중 낙하재해예방을 위해 현장 안전 통로 확보와 각 동마다 담당자를 지정하여 그의 관리하에 보호구 착용부터 안전시설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안전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안전시설에의 철저한 지원, 철저한 이용과 관리, 인격을 존중하는 월곶2차 아파트현장의 자세에서 준공하는 그날까지 무재해가 이룩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안전만이 당신의 수호천사입니다”라는 현장 입구에 걸려 있는 안전계몽 문구와 함영중 안전과 장의 바램인 “계획하고, 실행하고, 확인하는 3박자가 갖추어진 선진 안전 현장”이 반드시 지켜지고 이루어 지길 간절히 기원한다. 

〈최종덕 기자〉

